

성가복지병원 기도문



주님!
성가복지병원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보금자리로
시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저희가 늘 만나게 되는 형제, 자매들을
바로 예수님으로 알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숨어 계시든지
변덕스러운 갖가지 요구를 너그럽게 받아 줌으로써
“당신께 봉사함은 참으로 기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냉대와 무례함과 인내하지 못하는 저희의 잘못으로
상처 주지 않게 하소서.
고통받는 예수님!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높은 소명의 가치와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해 주시는 것임을 깊이 체험하게 해 주소서
성가복지병원을 도와주시는 모든 은인들과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저희 모두를
축복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아멘.

† 성가복지병원의 주보이신 예수님, 마리아님, 요셉님!
• 당신들께 의탁하나이다.



Contents 2019



표지
성가복지병원 후원모집
(공황동 성당)

발행년 2019년 | 발행처 성가복지병원
전화 02.940.1500(대)
주소 02733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9(하월곡동)
홈페이지 www.sgbokji.or.kr

성가복지병원 소개

06 설립목적 · 운영방침 · 사업안내 · 운영방법 ·
입원 및 외래진료

여는 글

10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하까이서 1,5)_
병원장 김 아모스 수녀

강생의 자리

14 원래 히어로는 없었다_ 간호사 한진희
17 사회사업과 이야기_ 사회사업과 정 원지베드로 수녀
20 하느님은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_ 신학생 김동희(모세)
23 성모님께 올리는 편지_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

나눔의 기쁨

26 봉사동아리 '이상'
29 저분은 주님이십니다_ 호스피스 봉사자 김광현(베네딕토)
33 선물과도 같은 기회_ 외래진료 봉사 한규만(안드레아)
35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_ 외래진료 봉사 신현수(토마스)
38 특별한 나눔 이야기

감사의 마음

42 찬미 예수님_ 김경자(체칠리아)
44 아버지를 하느님 품으로 떠나보내며_ 고 주○○ 자녀들
47 아직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_ 퇴원환자 이○○
49 내 마음의 고향인 성가복지병원_ 퇴원환자 장○○

성가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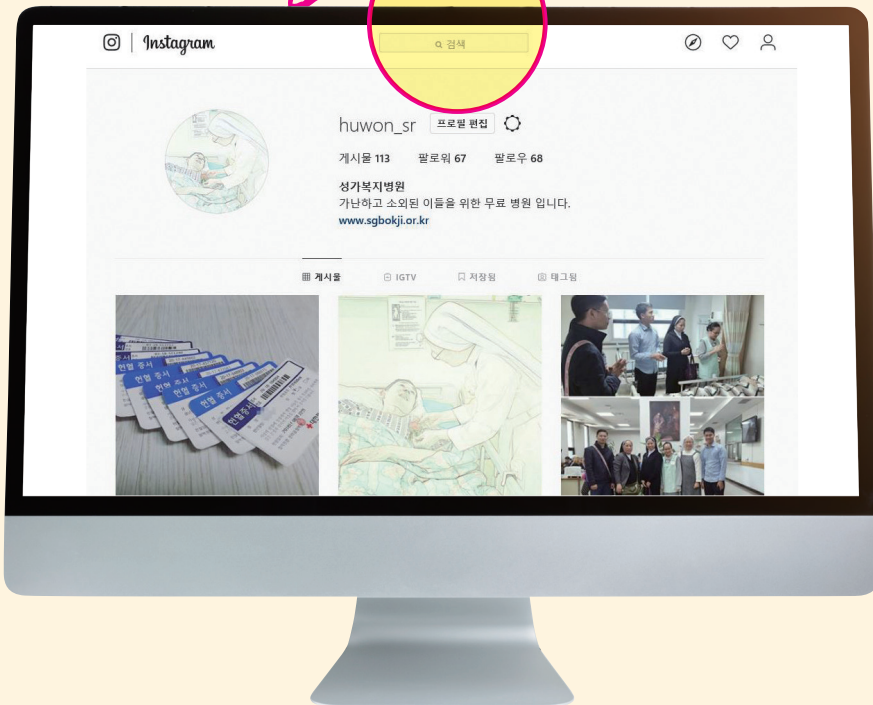
51 성가 소식
55 후원 방안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성가복지병원 만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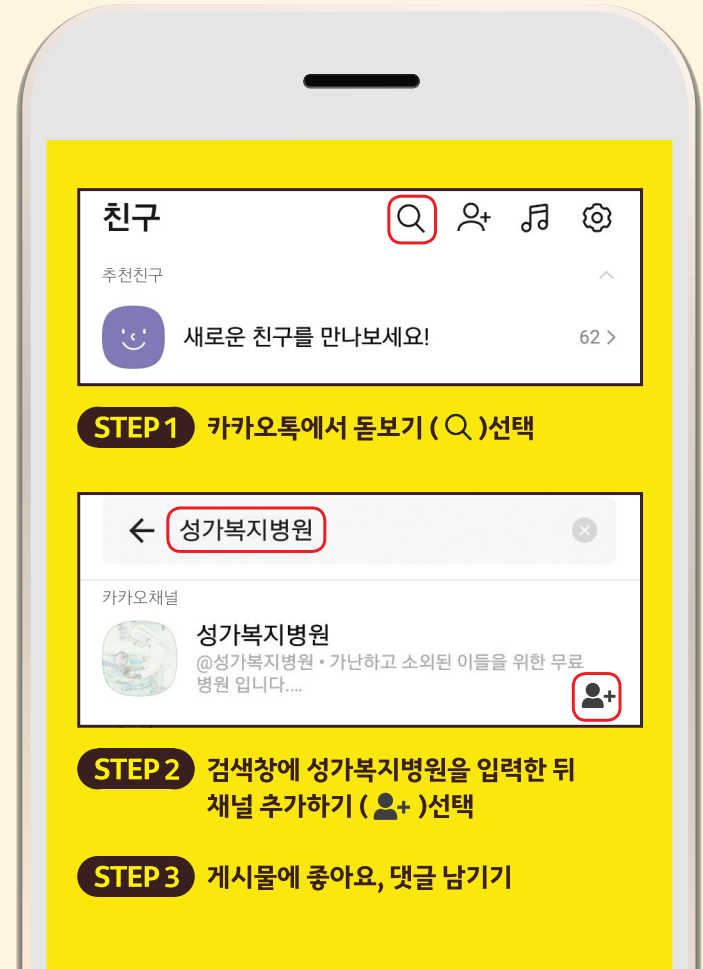
https://www.instagram.com/huwon_sr/

성가복지병원을 검색하세요~



KakaoTALK Ch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으로
일상 안에서도 **성가복지병원**을
만날 수 있어요^----^



성가복지병원 소개



설립 목적

성가복지병원은 성가소비녀회의 정신을 지향하는 의료복지기관으로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무의무탁한 이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여 한 가족을 이루며 그들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운영 방침

1. 성가소비녀회 정신을 실천하는 의료복지기관으로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2. 모든 의료서비스(입원, 외래)는 무료로 한다.
3.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의 지원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된다.
4. 사회심리적, 재활의 유기적 관계 형성과 전인 재활을 지향한다.

운영현황

1. 직원 현황 : 수도자,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전기 및 기관 기사를 포함한 기본인력
2. 자원봉사활동 분야
의료지원(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실)
차량(가톨릭 운전기사 사도회)
이·미용/목욕/청소/세탁/재봉/안내/도서/상담(정서지원)
영양과(설거지, 배식 등)
호스피스
3. 정부 지원 없이 정기 및 비정기 회원의 후원과 수도회 지원, 현물 후원으로 운영
4. 병상수 : 2병동(21실, 72병상)
5층(8실, 33병상) : 510호, 호스피스 병동
6층(13실, 39병상) : 단기 환자 병동
5. 진료과목 :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부인과, 피부과, 치과, 통증클리닉, 영상의학과 (내·외과를 제외한 과는 자원봉사 의사들이 진료함)

사업 안내

- 진료(외래, 입원)
- 호스피스
- 타 기관 연계
- 무료급식소(매주 화·토요일 점심)



입원 & 외래진료

/ 대상 /

차상위 계층, 노숙인, 행려환자, 무의무탁자, 외국인 노동자
호스피스(암보험, 생명보험 가입자 제외)

/ 서류 준비 /

의사 진료 소견서(타 병원 입원환자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선별 방법 /

1. 외래환자의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사회사업과 상담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원환자의 경우

사회사업과와 전화상담, 직접 방문을 통해 환자 상태,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상담하신 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상담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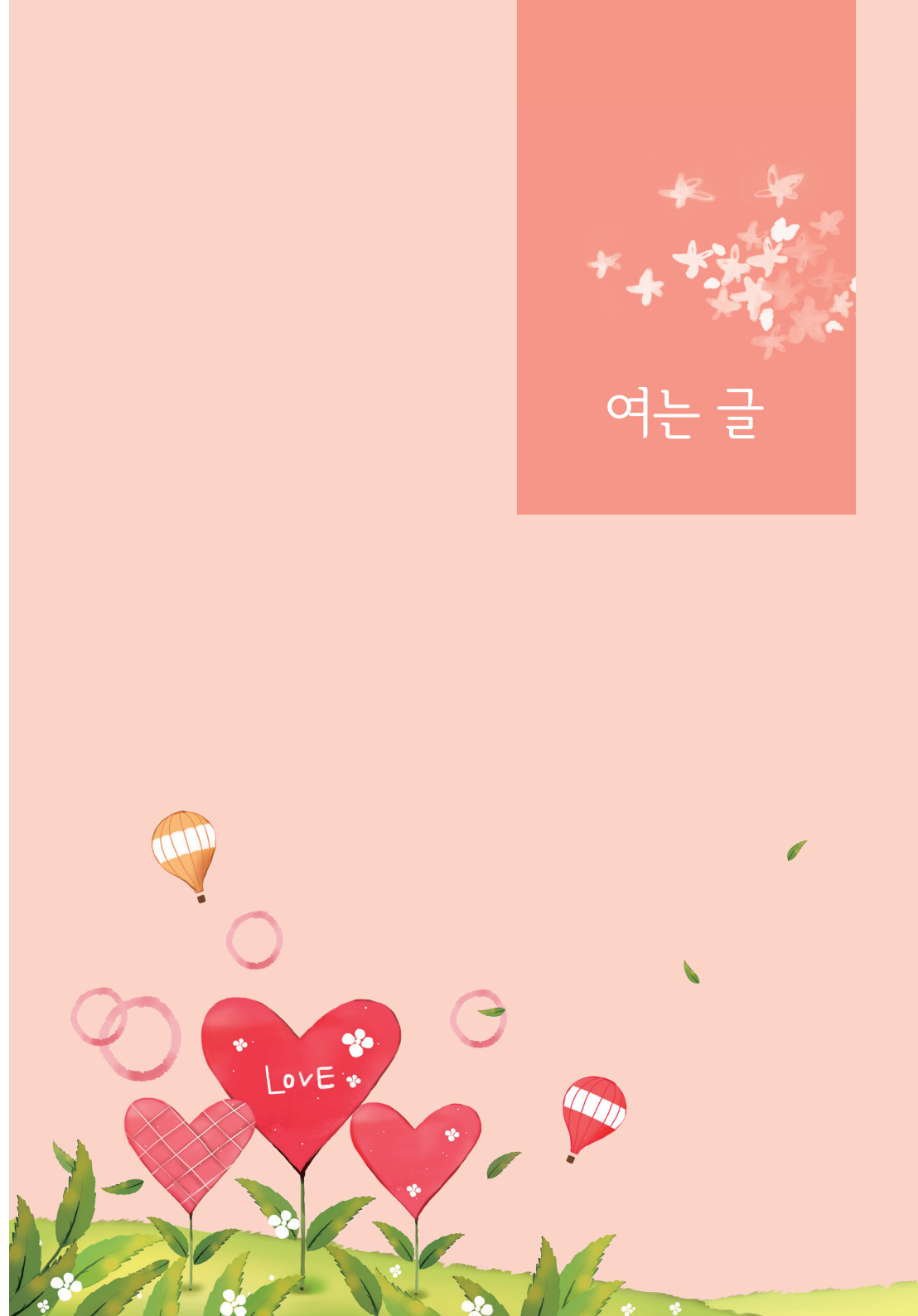
화~토요일 오전 9:00~오후 4:30(월·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사회사업과 전화 02) 940-1561~3 / 팩스 02) 940-1535

/ 외래 진료시간 /

홈페이지(<http://www.sgbokji.or.kr/>)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는 글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하카이서 1,5)

기쁨은 더하고, 슬픔을 나누고,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꿈꾸며...

글 · 병원장_ 김 아모스 수녀

“인간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일꾼으로는 부족하나
당신의 도우심에 힘입어
당신의 자비를 바라는 이들을
정성껏 돌보게 하시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인내하며,
당신의 뜻을 올곧게 실천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게 하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안에서
고통 받고 계신 당신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감사의 기쁨을
간직하게 하시며
저희의 작은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당신의 크신 은총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카리타스인의 기도’ 중에서)



2019년은 성가복지병원을 시작한 지 29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정책(공공보건 의료정책)을 피해 갈 수는 없는지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병원’으로써 병원 운영의 전반적인 돌아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립 주체인 성가소비녀회의 정신을 지향하는 의료복지 기관으로서 여정을 어떻게 하여 왔는지? 앞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직원, 환자, 자원봉사자, 수도회 회원 모두가 함께 살피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확인한 것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성가복지 병원은 지속되어야 하며, 절박한 곳의 사회적 약자들(가난한 이들)이 언제든지 이곳에서 치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열려있는 환자 중심의 병원, 위로와 안식처가 되는 병원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왔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이 되어 제안한 방안들을 함께 식별하고 고민하며,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꿈꾼다는 것이 사치일까?’라는 상념에 머물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병실의 환자를 방문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위로를 받고,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머물고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함께하셨던 우리의 어머니

니가 되신 마리아가 되어 “곰곰이 생각하며(루가 1,30)”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진정 주님으로 모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집과 행복한 밥상을 마련해 주며, 치료와 간호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성가복지병원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생생한 하느님의 집이 되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니,(이사 44.21) 자선을 베푸는 너희는 충만한 삶을 누리리라.”(토빗 1,9)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필립 4,13)라고 고백하며, 나눔은 결코 자신의 것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한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더해주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2019년을 정리하면서 성가복지병원을 아끼는 직원,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원 30주년이 되는 출발선 위에서 선물 같은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담아 기쁜 마음으로 서로 마주하며, 힘차게 인사를 드립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강생의 자리



원래 히어로는 없었다

글 · 간호사_한진희

어릴 적부터 제복을 워낙 좋아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 간호사를 쫓아 다녔고, 소방관 경찰관을 동경했으며, 성당에 가면 수녀님의 검정 수도복 자락을 잡고 가슴이 뛰곤 했다. 마치 히어로가 된 것 마냥...

병원 문을 들어서면서 제3세계가 열리고 변신 룸에 들어가 옷과 신발까지 바뀌면 드디어 히어로로 변신된 모습을 거울로 확인한다. 뭔가 사명감을 가득 품고 환자분들을 대면하는 간호사 히어로!..

이 부끄러운 모습을 알려 준 성가복지병원 6층 병동 환자분께 늦었지만 이 지면을 통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분은 작은 키에 수줍음이 많은 중년의 총각 아저씨였다. 출근을 하

면 601호 병실에서 복수가 차고 거동이 어려운 위중한 다른 환자분이 소변 통에 소변을 보는 것을 도와주시거나 말동무를 하고 계셨고, 식사 시간이나 수면시간이 되셔야 당신 병실로 들어가셨다. 그분의 내성적인 성격과 병실의 보이지 않는 텃세로 한 병실에 여러 명이 함께 계시는 걸 힘들어하신 이유도 있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러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아저씨는 한껏 간호사 히어로인 줄 착각한 나에게 노란 개나리가 보고 싶다며 개나리 가지를 부탁하셨다. 그 후 나는 다른 때와 다름없이 6층 병동으로 출근을 하였다. 그런데 그 수줍음이 많고 천사 같은 아저씨는 호전이 되어 퇴원을 하셨던 것이다.

‘개나리를 못 꺾어 드렸는데...’

당신이 사시던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마 노란 개나리를 보셨는지 하며 생각한 무심한 히어로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분이 고시원에서 홀로 외롭게 임종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도 가슴이 아파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스스로 유능하며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한 간호사 히어로는 순간 가운데 신발이 벗겨지고 아무개인 한진희로 돌아와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간호사가 되어 처음으로 입사 한 음성 꽃동네에서 만난 아저씨들은 주사조차 못 놓는 미숙한 나에게 20번을 짚러도 괜찮다며 사랑과 격려로 나를 감싸주셨고, 장애 아동 보육 시설인 아기 천사들은 당시 미혼인 나에게 엄마라



부르며 부족하고 메마른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나는 성가복지병원에서 다시 만난 아저씨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고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얼마나 반가웠던가... 역시 환자분들은 내가 가짜 히어로인 줄 알면서도 변함없이 나를 반겨주셨다. 그런데 고시원에

서 홀로 외롭게 돌아가신 수줍음 많던 아저씨의 임종은 나 자신이 히어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여러 아픔을 뒤로하고 성가복지병원을 퇴사한 후 나는 서울역 쪽방 방문 간호사로서 주민들을 직접 찾아 뵙게 되었다.

“난 뭔가 하고 있다.”

“난 도움을 주고 싶다.”

“난 그래야만 한다.”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준 소중한 만남이었다. 작은 창문조차 없는 한 평 남짓한 어두운 방에서 사투를 벌이며 하루라도 무사히 살아가자 하는 분들에게는 단지 간호사라며 혈압과 당뇨를 체크 해드리는 것보다 한 명의 사람으로서 다가가 아침, 저녁으로 건네는 안부 인사와 소소한 삶이 묻어나는 대화 몇 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되었다. 또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은 우리네의 일상과 달리 서울의 쪽방 마을은 마치 광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외로운 작은 섬이었고, 누구도 찾아오기 어렵고 나

가기도 어려운 그런 섬 이었다.

그 섬에서 다시 직면하게 된 본연의 나 한진희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고, 뒷걸음질하는 무능력한 가짜 히어로임을 깨달았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안고 2019년 1월에 다시 찾은 성가복지병원은 제3세계를 여는 문과 변신 룬도 없으며, 원래 히어로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네 이웃과 가족을 위한 병원이었다. 나 역시 가짜 히어로가 아닌 한진희로서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긍정적인 인연을 이어가며, 매 순간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끝으로 이 긴 여정을 가능하게 해준 성가복지병원 가족분들과 수녀님,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과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사회사업과 이야기

글 · 사회사업과_ 정 원지베드로 수녀

“자기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눈물이 마르게 해 주고, 행복을 주고, 그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일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말씀
[수도자를 위한 피정 中에서])



성가복지병원 사회사업과에 소임을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 선배 수녀님들이 저에게 사회사업과에서 소임 하는 수녀는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변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환자분들의 상황 안에서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여 당사자 입장에서 대변자가 된다는 것에는 민

감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환자분들과 동행하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이곳에 오는 분들은 성가복지병원의 진료 대상자가 맞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상담을 한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환자들이 국가 제도권 안에서 최

소한 보호받기 위해 증명할 수 있는 것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채 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며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몇 년을 보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관공서 등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거지 문제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작은 것이지만 환자들이 왜 포기하고 그냥 노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면서 조금 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연계만 되었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이제야 오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환자분이 무언가를 계획할 때 가끔 실패할 것 같은 계획을 이야기할 때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좋지 않을까요?’하며 권유라고 해 보지만 환자가 이미 결정을 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환자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실패하게 되더라도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 격려해 드리며,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고 조금 느리게 진행되더라도 환자분들이 계획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임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환자분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제가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면담 중 한 환자분이 저에게 했던 질문을 생각하고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되 내어 봅니다.

“수녀님! 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저와 같은 일시적인 현상이 안 일어날까요?”

이 질문을 떠올리면 제 선부른 계획이 아닌 그분들의 결정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표현해 주어야 하는 대변자이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이 참으로 그들의 집임을 그들이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교회의 얼굴이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에지드 반 브루그호벤 신부 공장노동자로 살다간 한 사제의 우정일기. 에셈복스 2015)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드려야 할 때 한계를 느낍니다. 대안이 없어 많은 선택권을 드리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복지제도가 좋아지고 기부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퇴원 후에도 쪽방촌, 고시원 등 소외된 곳에서 이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레위25,35~36)

우리의 돕고자 하는 마음이 구제와 봉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퇴원 후 환자분들이 많은 대안을 스스로 찾고 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이웃이 되어가는 것을 꿈꾸어 봅니다.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가복지병원에서 치유를 받았다면 더욱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분들과 퇴원 후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그리고 수많은 조력자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상상 만으로도 신나는 일입니다.

하느님은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글 · 신학생_ 김동희(모세)

따스한 햇볕 아래 살아있는 생명들이 각자의 빛깔로 춤을 추던 4월은 내가 성가복지병원과 함께한 첫 걸음이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느덧 따스한 햇살은 뜨거운 햇빛으로 변하고 움터오던 새싹들은 짙은 초록빛으로 달궈졌다. 성가복지병원에서의 일들이 손에 익었고 낯설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익숙한 나의 일상으로 되었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4개월의 여정 마지막 걸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오던 때, 나에게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다가왔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같이 성지순례를 다닐 정도로 건강하셨던 어머니께서 바로 다음 날, 심한 통증

을 호소하며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는 신장암 판정을 받으셨다. 그 일련의 과정들이 나에게 너무 순식간에 휘몰아쳤다. 누구에게나 삶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위기가 찾아온다고는 하지만 그런 고통들은 역시나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나에게도 예외는 없었던 것이다. 처음 이 사실을 들었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도 들었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느님을 원망하고 싶은 유혹이 순간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

었다. 이런 나의 황량한 마음 가운데 다가온 마태오가 전한 복음의 한 구절은 나를 다시 새롭고 굳건하게 만들어주었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마태 7,10)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다. 다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하

느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투정 부릴 뿐이다. 우리가 과거에 정말 큰 고통과 시련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돌아보자.. 지금은 어떠한가.. 이는 단지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지나왔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시간 안에만 한정된 것이라면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관이 있겠는가... 하지만 그 사건이 야말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는 하느님 사랑의 가장 큰 징표라고 할 수 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은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진다.

이런 나의 묵상 안에서 만난 하느님은 성가복지병원에서의 실습이 얼마 남지 않은 나에게 어머니를 통해 새로운 모습의 사랑을 선물해 주셨다. 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이후, 처음으로 나선 성가복지병원 모습들은 이제껏 내가 출근하던 곳이 아니었다. 그토록 익숙하고 내 일상과 같았던 병원의 모습들이 새롭게 다가왔다. 내가 매일같이 만나던 환자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였으며 형제이고 자식이었다. 나름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실습에 임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이제

야 뒤늦게 깨달았다. 아니 지금에서야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했다. 그 마음으로 환자들과 마주하니 자연스레 내 마음이 더 애뜻해지고 사랑으로 가득 찼다.

실습 마지막 날 병실을 돌면서 환자 한 분 한 분께 정말 나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처럼 그들의 눈을 맞추고 진심 어린 기도를 할 수 있었다. 환자들도 그런 기도 소리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응답해주고 따뜻한 손을 포개주었다. 그렇게 성가복지병원을 나서는 나의 마지막 발걸음에서 그들에게 내가 느낀 하느님의 사랑을 한 분이라도 더 전할 수 있었음에 참으로 행복했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렇게 사랑합니다.

성모님께 올리는 편지...

자연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5월에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성모님의 영적 풍요로움과 함께합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얼마나 믿었으면 이 환자분들을
저희에게 맡겨 주셨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임종을 기다리다 맞이하는
영적으로 고통스럽고 나약한 곳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 없는 가여운 환자의 마음과
어찌할 수 없는 측은함을 지켜보는 환자 가족의 마음과
몸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온갖 이물질들 몸 밖으로 쏟아내면서
극심한 고통의 육체를 안고 있는 환자들에게
성모님께서서는 함께 하시어
잃어버린 육체를 대신한 영혼을 올려 주셨습니다.



고비 고비마다 저희를 품어 주시고 빌어 주시는 성모님!
죽음의 고통에서도 인간적 품위를 지켜내는 환자와
각자의 능력과 정성으로 환자를 돌보는 봉사자·의료진·수도자들과
안타까움으로 환자를 보내는 보호자의 마음을 모아
저희들의 삶을 바치옵니다.

오늘의 경험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성모님의 모성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빌어주소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저희 병동 공동체의 뜨거운 사랑을 드립니다.

아멘.

2019년 5월 8일 호스피스 병동에서 올립니다.



나눔의 기쁨



봉사동아리 '이상'

: 매월 2주 토요일 무료 급식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한유 라우렌시아

작년 이맘때(8월 11일) 꾸르실료 지도자 양성과정 1년 교육의 일환으로 팀을 구성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상'팀 8명은 성가복지병원

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첫 봉사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밥 한 끼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온 날들에 감사함을 느껴야 할지, 부끄러움과 자책을 해야 할지, 마음 갈무리가 힘들었던 그 첫날!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해봅니다.

한창희 아오스딩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성가복지병원에서 작고 힘없는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기쁘고 귀한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이상’ 팀 꾸르실리스파들과 함께하는 이 여정 안에서 늘 기쁘게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성가복지병원에서의 식사 한 끼가 생명의 끈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봉사하는 내내 자꾸만 먹먹했던 기억... 주방 봉사의 이방인 같던 우리들 모습이 그분들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투영되었을지 지금 생각해봐도 어설피기만 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작더라도 끊이지 않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이해, 포용이 절실하고, ‘기도하겠다’는 막연한 약속보다는 지금 당장 현실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시원한 생수 한 병과 빵 한 쪽의 나눔 실천이 진정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권태영 알베르토

무료급식 봉사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다가갈 기회를

박미자 데레사

내 힘겨운 수고로 이 현실 어두운 곳의

무료 급식자들이 안녕하다면~~

내 한 끼 바친 대가의 야됨으로
이 시간 어딘가에서 고픈 배를
채워진다면 ~~

누군가의
서럽디 서러운 눈물이
그들의 볼을 적실 때
그들이 사는 날을 곱씹는 한풀이가
될 거라면 ~~

이 한 몸의 힘겨움이라도
설움으로 맺혀진 한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지워주시어
새벽달 지고 아침의 해 맞듯이
그들의 아린 가슴에
아침 이슬 맺힌 작은 하얀 풀꽃처럼
싱그럽게 피어나게 하소서.

강신현 야고보

사랑과 자비의 주님, '팀원들과 함께하는 무료 급식 봉사에서 주님의 얼굴을 뵈 수 있게 해 주소서.' 거의 모든 운영이 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에 팀장님과 팀원들의 한목소리로 지속적으로 봉사하기로 다짐을 했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필요한 곳에 도구로 써주시고 계심을 굳게 믿으며 앞으로도 더욱 낮은 모습으로 만나시는 모든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글 · 호스피스 봉사자_ 김광현(베네딕토)

“우리 모두 그렇듯이, 케이트도 영원히 살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의 본질은 서로 나누어야 한다.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접촉을 주고 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까?”

(근대 호스피스의 창시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홀 [생의 수레바퀴] 중에서)

일등, 승자독식, 약육강식, 자본주의 온갖 폐해로 점철된 지구촌의 이러한 생활상들이 나눔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의외로 이러한 질식할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연꽃처럼 피어나는 아름다운 낱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눔(Sharing)'입니다. 나눔은 상처투성이의 지구촌에 내밀히 번지는, 가날



프지만 강렬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향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

과 봉사자들 간의 일상을 통해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수십 년을 홀로 생활하다가 말기 암 판정을 받고 모국에서 마지막 생을 정리하려는 분, 가족들과 이리저리한 이유로 불목하여 독신 생활을 하다가 연락마저 끊긴 분, 꽃다운 나이에서부터 연로하신 분, 노숙인, 기결수에서 전직 교수, 한의사, 작가에 이르기까지 환우 개개인들의 삶의 환경과 역정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목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여명 또한 짧게는 며칠 길게는 일 년여입니다.

봉사 초기에는 이분들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어떤 인사말을 주고받아야 할지 태생적으로 아둔한 저에게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생면 부지의 이들과의 낯선 만남은 주님의 은혜로운 주선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흐른 작금에서야 따뜻이 손잡아 드리기, 냉수 한 잔 권해 드리기, 가려운 부위 긁어 드리기, 부종 마사지해 드리기, 얼굴과 손발을 따뜻한 물로 흠쳐드리기, 휠체어로 구내 도서관으로 모셔 드리기 등등 말 없이 다정스러운 ‘드리기’만이 이분들의 말문을 열어 드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트인 말문은 당신들이 이승에서 정리하고 싶었던 온갖 소망들을 언급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소망은 이러합니다. 소소하게

는 병원식이 아닌 동치미 국물 한 봉지에서부터 짜짜로니 한 개, 수십 년 동안 가뭇지 못한 부모님 산소 성묘하기, 생전 불목하고 지냈던 부부, 부모 자식, 형제자매들 간의 화해에 이르기까지 환우들 각자의 생의 역정만큼이나 다양한 소망과 후회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원의들을 메모해 두었다가 함께 이룰 수 있을 때가 저에겐 기쁨이요 보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분들의 소망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다반사였고, 안타깝게도 끝내 말문을 닫은 채 입원한지 며칠 만에 선종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진솔한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써 천국은 딱히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살아서도 향유할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을 비로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이들과 한 주일에 고작 네댓 시간 함께 하면서 그들의 고통, 두려움, 절망, 공포, 외로움을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총인지요?

저희 호스피스 봉사자에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희생을 감내하라는 것도 아닌, 단순히 ‘사랑의 눈길로 고요히 함께 손잡고 공감해 드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원의를 현실적으로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저 들어 드리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드리기만 해도 분에 넘치는 고마움을 표현하시고 행복해하십니다.

일례로 이십여 년을 해외에서 독신으로 떠돌다가 말기 암 판정으로 귀국한 환우 분과 단둘이 가을 여행

을 떠난 일이 떠오릅니다. 수십 년을 찾아뵙지 못한 경기도 여주 모치의 부모님 산소를 죽기 전에 찾아뵙고 싶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월이 너무 흐른 탓에 산소는 찾지 못했지만 산 아래 자락에서 술 한 잔 올려드리고, 주변에 알밤을 몇 움큼 주워 귀원한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분은 선종하시던 날까지 두고두고 당신의 소원을 풀어 준 봉사자라며 고마워 하셨습니다.

자신도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움직일 수 있는 한 이웃 환우를 돌보고 심부름까지 도맡아 하시던 환자분, 무신론자로 독신으로 혈육도 멀리한 채 육십 평생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어떤 환자분은 의료진 외 누구와도 눈 마주치는 것조차 거부해 오다가 수녀님의 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대부에게 눈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은 나에게 있어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암으로 말미암아 하느님도 천국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닌 삶의 한 부분이며, 그들과 우리는 가까운 날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공감할 때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희망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시간 죽어 가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예외일 것 같은 착각을 버릴 때 지금 우리들의 삶은 더욱 튼실하게 살아질 것입니다.

오늘도 병원 현관에서 저희 성가복지병원 모든 봉사자들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여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저희들을 맞아 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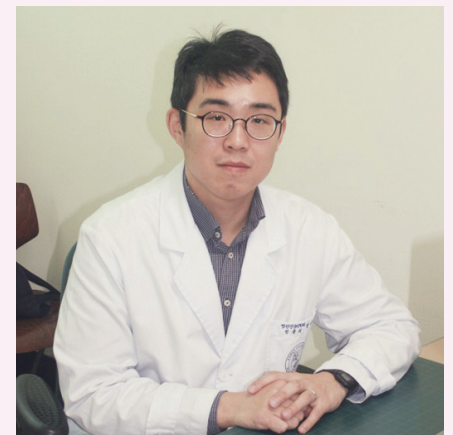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요한21,7)



선물과도 같은 기회

안녕하세요, 성가복지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진료 봉사를 맡고 있는 한규만 안드레아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으며, 가톨릭 모임을 통해 성가복지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진료 봉사자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작년 6월부터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 토요일 진료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의사로서 진료 봉사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해왔지만 병원 일이며, 집안 사정이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 가면서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늦깎이 신자입니다. 대학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곧바로 군의관으로 입대를 했는데, 그곳



글 · 외래진료 봉사(정신건강의학과)_
한규만 안드레아

에서 장교 임관 훈련 과정 중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훈련 중에 소총이며 수류탄이며 무기를 만지게 되면서 언제 하느님께 불려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3년간의 군 복무 이후에도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글 · 외래진료봉사(정형외과)_ 신현수 토마스

성당을 제법 열심히 다녔는데, 복음 말씀과 신부님 강론이 제 마음속에 송곳처럼 꽂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느님 은총으로 의사가 되었고, 형편도 좋은 편인데 십자가는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할지언정 이웃을 돕는 일은 무엇을 하고 있지?”, “주님 앞에 서는 날 세상에서 무슨 좋은 일을 했냐는 물음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의 죄책감과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 선물과도 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성가복지병원에서의 진료 봉사입니다. 이곳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분들은 대학병원에 오시는 분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사실 정신과에서 보는 질환들은 환자분들의 심리 사

회적 환경들이 병의 경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가복지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의 사는 얘기를 들어보면 삶의 굴곡과 그 무게가 너무 커서 마음의 병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들면서도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해 주실 때면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매번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오를 때면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료를 보러 오는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한 시간 정도 지하철을 탄 후 십여 분쯤 걸어서 도착한 성가복지병원~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건물에 들어서니 인터넷에서 본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하고 군더더기 없는 일층의 분위기와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들, 조용히 계속 움직이는 봉사자들과 간혹 수녀님들의 발걸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은 ‘꽤 오랫동안 많은 환자를 돌본 곳이구나!’라고 느끼며 이층으로 올라간 순간 저는 복도를 가득 메운 환자들에 놀랄 틈도 없이 성가복지병원에서의 첫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간호봉사자 선생님, 동료 의사, 수녀님들의 배려로 당황스러웠던 하루 진료를 마칠 수

있었으며,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정신없었던 첫날의 기억은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진료하는 것도 좀 익숙해졌고,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캐나다 여행 중에 사고로 병원에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환경에서 정확히 나를 전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사지만 당황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 그곳의 자원봉사자를 발견하고 상당히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그가 직접 진료 해 준 것이 많지는 않았더라도 단지 대화를 할 수 있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가복지병원에서 보게 되는 많은 환자는 우리나라에서 소외받는 계층의 분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인데, 아마도 제가 캐나다 여행 중에 겪었던 저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명해질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그들의 말을 듣고, 한 번 더 그들과 이야기하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받은 혜택을 조금이나마 대갚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는 남들과의 관계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주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깁니다.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일원으로 팔레스타인 의료봉사를 가기로 무의식적으로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고(생김새, 관습, 국가의 힘 등), 나도 모르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몇 달을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수도에서는 소금기 먹은 물이 나오고 공공 교통수단이 없어 우마차나 낙타를 타고 다니고, 모든 생필품은 우리나라 50년 전 사정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들도 웃음이 있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원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또 자그마한 나의 치료에 감사하다는 표현은 왜 그리 과한지요...

그들은 단지 불편했을 뿐인데, 나

의 동정이 교만함은 아니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기도 되는지에 대해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성가복지병원에서의 의료봉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고, 감사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분들과 늦게나마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요즘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기에 세상은 역시 살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서 조화롭게 만든 작품일 것입니다. 아직도 많이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가복지병원과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항상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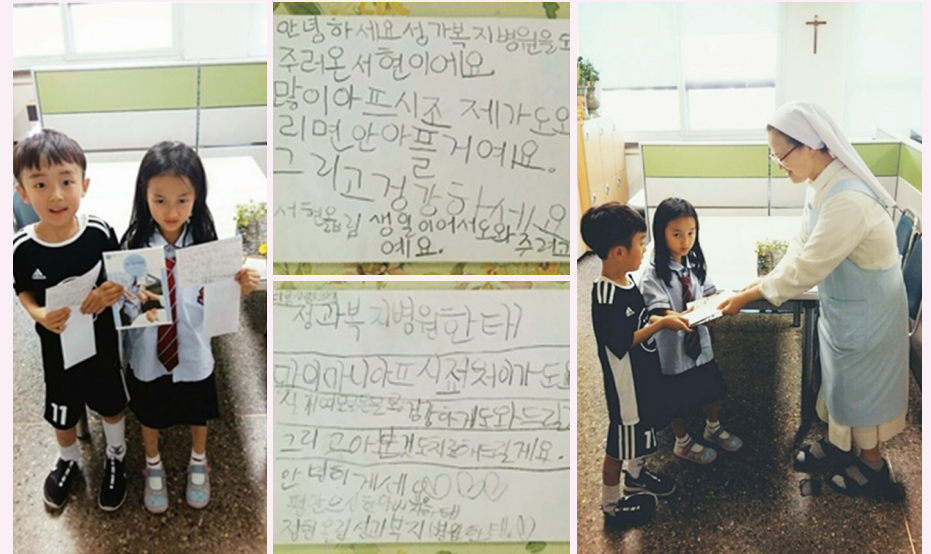
특별한 나눔 이야기

하나! [석교상사]후원 ‘환자 봄 나들이’



지난 5월 15일 [석교상사] 후원으로 환자 분들과 함께 양수리로 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파스한 봄 햇살 아래 환자분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신 [석교상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둘! 쌍둥이 생일 기부



지난 5월 30일 생일을 맞은 쌍둥이 남매가 친구들과의 파티 대신 착한 기부를 하기 위해 엄마와 함께 성가복지병원 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 . 예쁜 엽서에 마음이 가득 담긴 편지와 그동안 모은 용돈을 기부해 준 윤정현, 윤서현 어린이 ~ (하트) 선한 빛을 가득 선물해 주어 고마워요 ~ 건강하고 슬기로운 어린이로 성장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셋! '첫 돌' 기념 떡 기부



'박서하(루카)'
첫돌 기념
2019.06.29

루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의미있는 나눔이
가득하길 바라며...

루카가 드리는 생일떡
맛있게 드시고,
건강과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루카와 엄마,아빠 드림



지난 6월 29일 김은정(보나), 박찬욱(프란치스코) 부부가
자녀 박서하(루카)의 첫 돌을 맞아
성가복지병원에 기념 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성가정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성가복지병원 공동체와 함께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마음



찬미 예수님

성가복지병원에 계신 수녀님들과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들과 호스피스 봉사자들과 수고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성가복지병원의 천사 분들이 아니었으면
저의 모친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쩔 뻔했나..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남동생의 발걸음을 하느님께서 성가복지병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어 모든 천사 분들의 사랑이 넘치는 치료와 간호 덕분에
저의 모친께서 평화롭게 선종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분명히 하느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흠숭하고, 앞이나 서나 하느님만을 믿었던
어머니의 진실한 신앙에 하느님께서 어머니에게 선종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혜화 초등학교 시절 성당에 먼저 다녀와야
밥을 주셨던 무서운 어머니의 신앙 정신이 생각납니다.
구교 집안이었기에 구약의 무서운 하느님만 강조하셨던 어머니!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남겨진 4형제 모두가 주님 안에서 늘 기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녀님들! 의사, 간호사 선생님! 봉사해 주시는 모든 천사 분들의
발걸음 걸음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3월 8일

고 김○○(테레사) 큰 딸 김경자(체칠리아)올림



아버지를 하느님 품으로 떠나보내며

아직도 옆에 계시는 것 같은 아버지를 그리며 이 글을 씁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난히 건강을 신경 쓰시던 분이셨습니다. 당신들이 아프지 않고 잘 지내야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며 매일 운동을 하시며 건강을 관리하셨고, 몇 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머니도 직접 돌보시며 생활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2017년 12월 14일, 기침이 계속 나온다고 하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소세포성 폐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87세라는 연세에 비해 건강하셨던 아버지는 항암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셨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더 사셔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젊은 사람도 버티기 힘들다는 항암 치료를 6차까지 잘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성대가 마비되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암이 뇌까지 전이되어 1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원한 곳에서 작은 처치라도 받길 원했지만, 2주가 지나자 병원에서는 자리가 없어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 퇴원을 하라는 통보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걸음조차 못 걸으셨기에 집에서 생활하시긴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호스피스 병원으로 모시기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 대책을 고민하다 지푸라기라

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한 성가복지병원에서 저희의 이런 사정을 듣고 입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항암 치료를 마친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곧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고 계셨기에 여러 고민을 하다가 동생 신부님의 추천으로 성가복지병원의 승낙을 받게 되었다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우려와는 달리 아버지는 기뻐하셨고, 2019년 5월 28일 성가복지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전 병원에서와는 달리 아버지께서는 늘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하셨고, 얼굴 표정도 점점 밝아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은 늘 친절히 대해주시며 정성껏 진료해 주셨고, 수녀님들은 환자들을 따듯이 보살피시며 매일 기도해 주셨습니다. 봉사자분들 또한 고된 목욕봉사도 웃으며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잘 보살펴 드리기 위해 낮에는 저와 막내 여동생이, 밤에는 큰 오빠와 작은 남동생이 교대로 열심히 간병을 했지만, 길어지는 병간호로 인해 모두가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인 저희들 보다 더 따듯하게 환자를 돌봐주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부끄러워짐을 느꼈고, 보호자인 저희와 치매이신 어머니의 식사를 끼니 때마다 잊지 않고 챙겨주심에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아프신 와중에도 주변을 참 많이 챙기셨습니다. 아버지 옆에는 갈 곳도 없고 가족들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분이 있었는데, 저희에게 그분의 자녀들 대신 잘 챙겨드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을 보러

갈 때면 그분이 좋아하시던 요플레를 매번 사다 드렸고, 그분의 심부름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본인의 고통 중에도 치매이신 어머니와 주변 분들을 자신보다 더 많이 챙기셨습니다.

2019년 6월 14일, 아버지를 임종 방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매일 미사 안에서 성체를 모시며 기뻐하셨던 아버지를 위해 수녀님들이 오셔서 자비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비록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6월 15일 저녁 10시 50분에 주님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동안 성가복지병원이 다른 병원보다 환자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어왔었는데 이곳에 머무르면서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의 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성으로 돌봐주신 수녀님들과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을 비롯하여 모든 봉사자분들과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그 곳에서 뵈 많은 분들의 모습처럼 저희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 주○○ 요삿팍의 자녀들 올림

아직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글 · 퇴원환자_ 이○○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마치 드라마보다 더 한 삶을 살아온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힘들고 아프게 살아온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통해 아픈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새 삶의 희망의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한 글을 씁니다.

40년 넘는 인생 속에서 저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계속되는 이혼과 재혼, 재가한 친모로 어느 곳에도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힘든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어서는 다양한 일을 하며 지내다가 결혼도 했지만 얼마후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자궁에 혹이 생겨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 후에는 회복이 되지 않아 지하 단칸방에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일을 못해서 보증금마저 밀린 월세로 없어지자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다시 일을 해 보려 했지만, 무릎이 붓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진통제로 견디며 “이러다 혼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월세가 밀리니 집주인이 찾아왔고, 누워 있는 저를 보고 주민센터에 도움을 청해 성가복지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며 지내면서 하느님을 찾게 되었고,

병원 내 성당에서 못하는 기도를 하며 제게도 구원의 손길을 주시길 바랐습니다. 2차 3차 병원의 진료와 검사를 통해 통증의 원인도 알게 되었고, 차츰 나아지는 제 다리를 보며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SH주택에서 지원되는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고, 신앙을 더 키워나가기 위해 인근 성당에서 예비자 교리를 받으며 지냅니다. 지금도 다리가 아프고, 다시 재발한 자궁 통증으로 수술도 하게 되었지만 믿음 안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매일 기도드리며, 저처럼 외롭고 힘든 이들이 밝은 빛 속으로 걸어 나오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의 고향인 성가복지병원

글 · 퇴원환자_ 장○○

저의 중국인 부모님은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오셔서 파배기 장사를 하며 지내셨습니다.

저는 밀양에서 6형제 중 다섯째로 태어났고, 형제 넷은 사망하고 유일하게 형과 저 둘만 생존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끔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곤 하는데 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2003년 함께 지내던 형과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와 혼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어느 날 당뇨병에 걸려 강남 서울의료원에서 두 다리를 무릎까지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너무 괴롭고 힘들어 죽고 싶은 생각 밖에 없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오랜 세월 휠체어를 타며, 노숙을 하였고, 가끔 마음 착한 분들이 지나가시다 주시는 돈으로 생활을 하였는데, 다

른 노숙인들이 돈을 가져가도 두 다리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뺏기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노숙생활을 하게 되면서 양쪽 다리와 엉덩이까지 욕창이 생겼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저는 급기야 국립의료원에서 왼쪽 손 두 번째 손가락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느 곳을 가야 할지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시 저는 손가락 상처뿐 아니라 손목 부위, 양쪽 무릎과 엉덩이까지 욕창이 생겨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다행히 성가복지병원에서 저를 받아주셔서 이곳에 9번째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가복지병원은 제가 힘들 때면 늘 집처럼 찾게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외과 선생님이신 강주원 원장님은 따뜻한 말과 위로로 가끔 농담도 건네며 정성을 다해 저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원장 수녀님은 저에게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운동하고 식사도 잘하면 상처가 빨리 나을 거라고 격려해 주셨고, 6병동의 간호사 선생님들은 매일 화장실과 병동을 소독액으로 청소해 주시고, 진물 묻는 환의를 새 환의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쁜 화분도 가져다주시고, 간식도 잘 챙겨주셨습니다.

사회사업과 수녀님들은 국적이 대만인 제가 한국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려고 애쓰셨고, 월목실 수녀님들은 매일 병실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미사 참례를 가지 못하는 저를 위해 영성체를 모시게 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수녀님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랑과 봉사의 산실입니다. 수녀님,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봉사자분들의 노력과 기도는 피폐해진 제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가복지병원에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제 다리와 엉덩이 욕창이 깨끗해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1층 성당에 가서 수녀님들, 다른 환자들과 함께 미사도 드리고 영성체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많은 분들께 어떻게 제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가 소식

1월



01. '무료 급식소' 설날 떡국 나눔



12. 이문동 성당 '붕어빵' 나눔

2월



08. 병자의 날 '웃놀이 한마당'

3월



02. 구의동 성당 후원 모집 ~03.

4월



19. 세탁기, 건조기 축복식



27. 암사동 성당 후원 모집 ~28.



29. 자원 봉사자 연수(성가소비녀회 성재덕관)



30. 무료급식소 '사랑의 짜장면' 나눔(강동 무료 중식 봉사회) ~03.

성가 소식

5월



08. 성모의 밤 전례



15. 석교상사 후원 환자
봄나들이(양수리)



08. 어버이날 '카네이션' 선물



16. 소방훈련



13. 직원 문화행사 1차: 서울 근교
(인사동, 한양도성, 이화동 벽화마을)

6월



07. 호스피스 교육



08. 공향동 성당 후원 모집
~09.

14. 직원 교육



7월



02. 아프리카 대사 부인
모임 방문



13. 의정부교구 예비
신학생 방문, 봉사



13. 북경 신학교 사제단,
의정부 교구 사제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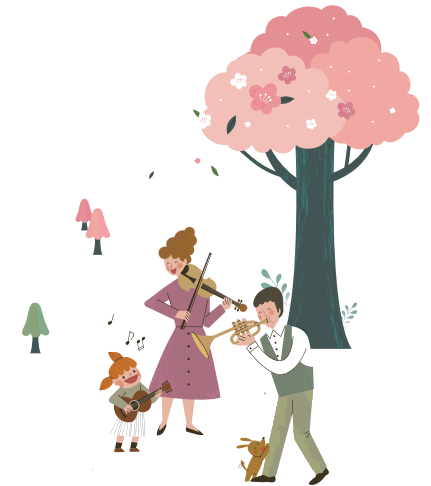


18. 세례식
(호스피스 환자 2분)

19. 중국 장상 수녀 방문



23. 개원 29주년 기념 미사



성가 소식

9월



11. 영훈초 1-1 '나눔반' 후원방문, 공연



13. 추석 '무료급식소', '봉사' / 선물 나눔 : '마음이' 봉사 동아리 : 성가소비녀회 양성소



13. 이윤정(마르타)님이 후원 해주신 '한가위 맞이' 떡을 무료로 급식소를 찾아오신 분들과 선물로 나눠 드렸습니다.

10월



12. 성북구청 '신앙 대회' 홍보부스 참여



21. 직원 2차 문화행사 : 솔미 성지, 공세리 성당

새 가족이 된 직원과 외래 봉사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6병동 형혜정 간호사 신경외과 김성곤
5병동 김혜연 간호조무사 정신건강의학과 김채리, 김진국
영양과 김중화 산부인과 전영은 수녀
안과 유영석, 이종원

※ 성가정의 은총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

11월



08. 사별가족 모임

16. 목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과 견학 방문

12월

14. 한강성당 후원모집 ~15.

20. '환자 위안의 날' 장기자랑

후원 방문

4월



06. 전국여성 법무사회 쌀 기증

5월



23. 배우 최강희 팬 쌀 기증

6월



15.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태울, 휴지 기부

7월



04. 양재동 화훼공판장(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 다육식물 문화 협의회 : 후원금, 다육식물 80개 기증



20. 서울아산병원 심장검사팀 쌀 기증

8월



01.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9월



05.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 온누리 상품권



06. 의정부 교도소 후원금 전달



10. 보라매 병원 후원물품 전달



19. 배우 이준기&고려대학교 의료원, 사랑의 쌀 전달식

그 외 물품 후원자

쌀 후원

고) 이용태님 가족
 고) 이준엽님 가족
 고) 박판주님 가족
 국민건강 보험공단 성북지사
 경기북부지방 법무사회
 김중곤 목사님
 김진희 님
 김혜자(데레사) 님
 동부지방 법무사회
 방배동 성당
 사단법인 아름다운 공동체
 성북 신희
 신정 3동 빈첸시오회
 약현성당
 요셉의원
 이금향 님
 이영석 님
 이효진 님
 한강 성당

식재료 외

고) 방성현님 가족
 고) 유봉선님 가족
 고) 정갑산님 가족
 고) 황길자님 보호자
 고) 황금숙님 보호자
 가르멜 수도원
 강동중식 봉사회
 강릉 심해두부
 강주원 원장님
 고) 강용운님 보호자
 고) 김복규님 가족
 고) 박필남님 가족
 고) 신근식님 가족
 고) 이종욱님 가족
 고) 주기준님 보호자
 고서형 님
 구경신 님
 국민은행(길음동)
 국민은행(미아동)
 길음 복지관

길음동 성당
 길음안나의 집
 김 아모스 수녀님
 김 에즈라 수녀님
 김경자 님
 김성선(프란치스코) 님
 김은희 님
 김인득(안나) 님
 김재만 님
 김진희 님
 김현교 님
 김혜자 님
 김화련(크리스티나) 님
 논산 수박 연구회
 농협(길음역)
 대성 인력개발
 돈암 3동 서 마르코 님
 동두천 상회
 동부병원
 동일 방앗간
 들꽃 힛터 교회
 목 5동 성당
 박경림 님
 박복순(안젤라) 님
 박용건 과장님
 박정자 님
 보라매 병원
 사랑터
 서상현(이나시오) 님
 서울 장충 라이온스클럽
 서주영 과장님
 서한별(스텔라) 님
 성곡 수산
 성모 마음 정신과
 성모자애 드림힐
 성북 신희
 성북 중앙병원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성북구청 여성가족부
 송 까리따스 수녀님
 송천동 성당
 스승예수 제자회
 스키이 요양병원
 신인순(아녜스) 님

신학근 님
 아프리카 대사부인 모임
 안예균 님
 안용현 님
 양희자 님
 엄이순 님
 에이스 병원
 영훈초등학교 나눔 봉사회
 용대리 공동산장
 옹하성 신부님
 우리은행(중앙동)
 우영개발
 유진우동
 음식문화 연구원
 의정부 교도소
 이계숙 님
 이계춘 님
 이기종(안토니오) 님 가족
 이영주 님
 이윤정(마르타) 님
 이승희(헬레나) 님
 이천 미리내 수도원
 장 마르코 님
 장 예수의 아나님 수녀님
 장위동 성당
 장정희 님
 직심자회
 진시자 님
 전혜윤 님
 전홍갑 님
 정란 님
 정현철 님
 종각집
 종림축산
 진홍순(글라리아) 님
 쪽방 상담센터
 푸드뱅크
 최 토마시아 수녀님
 친절떡방
 프란치스코의 집
 한강성당
 한국사랑나눔공동체
 한진희 님
 해방촌성당 빈첸시오회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현대정육점
 홍성오 님

의류 기부

고속버스터미널성당 교회회
 김덕삼 님
 김성희 님
 김은숙 님
 권영애 님
 문선정 님
 박영직 님
 고) 박필남님 가족
 서울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석관동 성당
 성가소비녀회 의정부 관구
 송연섭 님
 송천동 성당
 쌍문동 성당
 오은영(마리아) 님
 우리은행(중앙동)
 유경주 님
 이상진 님
 이영자 님
 이윤정 님
 이재준(다니엘) 님
 진인수(경동직물) 님
 집실 3동 성당
 최 데레사 님
 최난현 님
 최다연 님
 최영 님
 최오락(요아킴) 님
 홍선숙 님

소모품 외

가화실버 요양원
 고) 안홍균님 가족
 김재만(아타나시오) 님
 김혜주(루시아) 님
 김호재(아녜스) 님
 박선옥(요셉파나) 님

보라매 병원
 우리집 공동체
 정운진 님
 천득이 님
 최근례 님
 최영목 님
 해방촌성당 빈첸시오회
 홍도숙 님

도서, 성물

가톨릭 출판사
 김영신 님
 이 테오파노 수녀님
 정태수 님

재능 기부

공향동 성당, '부토벤 밴드'
 김점옥(헬레나) 님

♥소중한 나눔을 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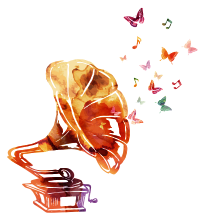
현장실습

강민균	안드레아	1/22~4/30	광주교구
이맑음	마오로	1/22~4/30	광주교구
박재형	도미티코	2/26~6/30	의정부교구
이재형	사도요한	12/26~6/30	의정부교구
최윤우	라우렌시오	2/26~6/30	의정부교구
김동희	모세	4/1~7/31	서울교구
한지영sr	임마누엘	5/2~26	성가소비녀회
김소영sr	피에타	5/2~8/31	성가소비녀회
박도윤	루돌포	7/8~8/9	춘천교구
박관옥	안토니오	9/2~10/31	춘천교구
이상현	대건안드레아	9/2~10/31	춘천교구
박정한	요한보스코	10/1~10/31	춘천교구
리고베르토 가르두노	리고베르토	7/16~8/17	과달루페외방선교회
리엔(청원자)	데레사	10/2~10/30	성가소비녀회

김자현 님
 영훈초등학교 '수화천사'
 이덕경 님
 황유라 님

기타

국민은행(미아동 지점)
 : 선풍기, A4용지
김경월(아슴파) 님 : 의료기구
김점옥(헬레나) 님
 : 호스피스 휴게실 미니가든 기증
남춘재단 : 전통침대 8대
석교상사
 : 의약품/급탕 탱크 교체/전동침대 18대
영훈초등학교 교장선생님
 : 업소용 청소기
한국타이어 나눔 재단 : 자동혈압계/
 혈액학 분석기/Patient Monitor



알려드립니다

2018년 환자 진료현황

(단위 : 명)

기간	외래진료			입원 (연인원)	호스피스 병동 사망자
	초진	재진	계		
2018년	1,017	28,999	30,016	13,552	90
1990년~ 2018년	27,395	560,290	587,685	670,677	3,105

후원금(물품)내역 및 사용결과보고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법인 보조(후원금)	2,821,121	사업비	547,588
기부 물품 (약품, 의료소모품, 급식재료, 의료기기, 소모품 외)	301,209	인건비	2,062,310
		관리운영비	356,924
		잡지출	576
기타 수입	39,105	재산유지조성비	194,037
계	3,161,435	계	3,161,435

후원 방법

- **자동이체(CMS) :**
신청서 작성 ▶ 금융결제원에 송신 ▶ 매월(5일, 15일, 25일) 이체하는 방법
- **지로 :** 지로 용지로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 이용 시 :** 지로번호 7529458
- **온라인 계좌이체 :** 후원자가 은행에 신청하여 후원하는 방법

성가복지병원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17-25-0001-379
- 우체국 013474-01-000253
- 기업은행 006-000141-04-010
- 신한협 01168-12-000238
- 하나은행 289-810001-70404
- 하나은행 172-890000-39004
- 신한은행 140-000-247209
- 우리은행 048-068235-01-015
- 농협 051-01-184347
- sc제일은행 226-20-412973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성가소비녀회



후원 안내

소득공제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병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회원님과 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신 회원님들은 후원회(Tel 02-940-1501, 1502 Fax 940-1545, 메일 bobinhuwon502@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 보내 주시는 각종 생활필수품(의류, 쌀, 떡, 빵, 채소, 음료, 과일, 고기, 휴지, 세제)과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등을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후원하고 계십니다. 고마우신 분들을 위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미사 봉헌과 매일 아침·저녁기도 시간에 기도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소식은 홈페이지(www.sgbokji.or.kr)와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huwon_sr/) 카카오톡채널(https://pf.kakao.com/_xnzFqT)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